

01. 예열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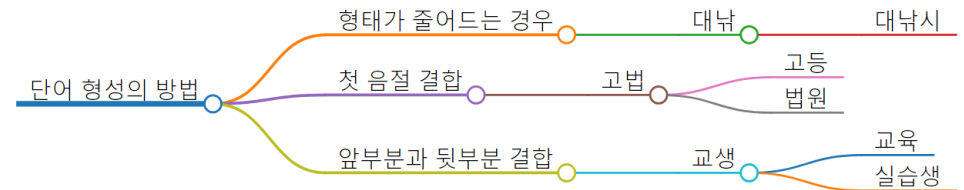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1. 주제 단어:

- 복합어
- 합성어
- 파생어
- 어근
- 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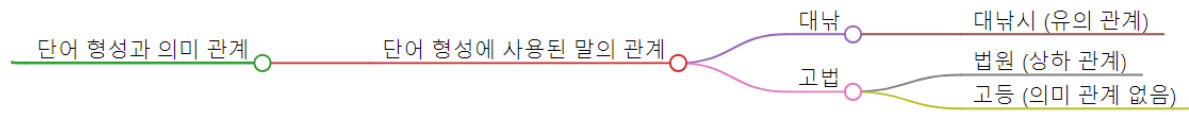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냥’은 ‘냥싹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뜻하는 ‘대냥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1. 주제 단어:

- 단어 형성
-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 처음절 결합
- 앞부분과 뒷부분 결합
- 단어의 의미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냥’과 ‘대냥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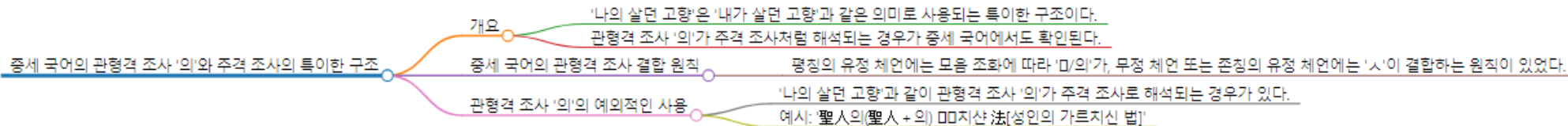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인의(聖人 + 의) ㄹㄹ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ㄹㄹ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스’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2. 주제 단어의 중요성:

관형격 조사 '의': 해당 문단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과 '聖인의 ㄹㄹ치산 法'과 같은 특이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중세 국어: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로,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예시를 중세 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격 조사의 역할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1. 주제 단어:

- 관형격 조사 '의'
- 중세 국어
- 주격 조사
- 의미상 주어
-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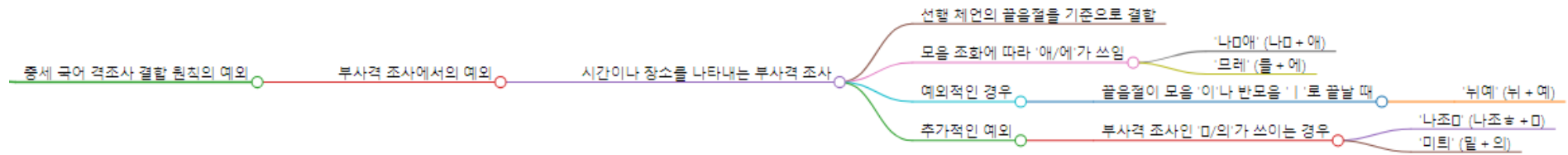
의미상 주어: 관형격 조사 '의'와 함께 사용되는 체언이 실제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상 주어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결합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형격 조사의 일반적인 결합 원칙과 예외적인 사용 사례를 알아야 한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중애’(나중+애), ‘므레’(믈+에)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 ‘뉘예’(뉘+예)에서처럼 ‘예’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예’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익/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ㅎ’[저녁], ㉡ ‘우ㅎ’[위], ‘밧’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ㅎ’에는 ‘익’이 결합하여 ㉢ ‘나조히’(나조ㅎ+익)로, ‘밧’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딕’(밧+의)로 나타났다.

2. 주제 단어의 중요성:

-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 해당 글의 주제이며, 중세 국어에서 격조사와 결합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모음 조화: 부사격 조사에서 모음 조화에 따라 ‘애/에’가 쓰이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 예외: 부사격 조사에서 ‘예’ 대신 부사격 조사인 ‘익/의’가 쓰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1. 주제 단어:

-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
- 부사격 조사
- 모음 조화
- 예외
- 특수한 체언들

- 특수한 체언들: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애/에/예’ 대신 부사격 조사인 ‘익/의’가 쓰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익그에’는 관형격 조사 ‘익’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㊸ ‘늬미그에’(늬 + 익그에)나 ‘어마늬기’(어마늬 + 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늬’에는 ‘익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늬’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익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㊸ ‘께’로 이어진다



1. 주제 단어:

-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 관형격 조사
- 관형격 조사와 결합되는 명사
- 현대 국어와의 대응
- 읽기 발달

2. 주제 단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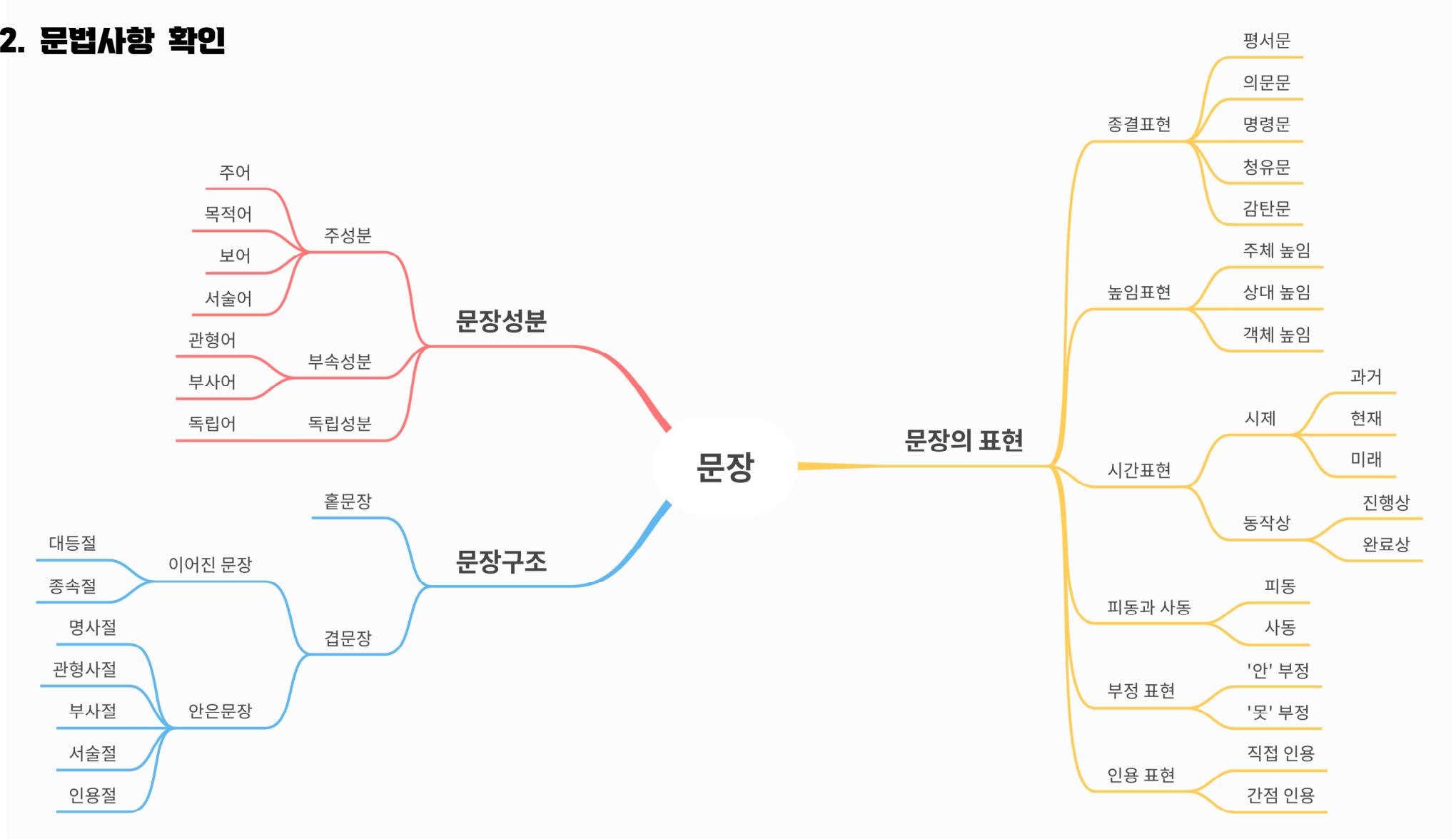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이해하려는 글의 주요 주제이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독특한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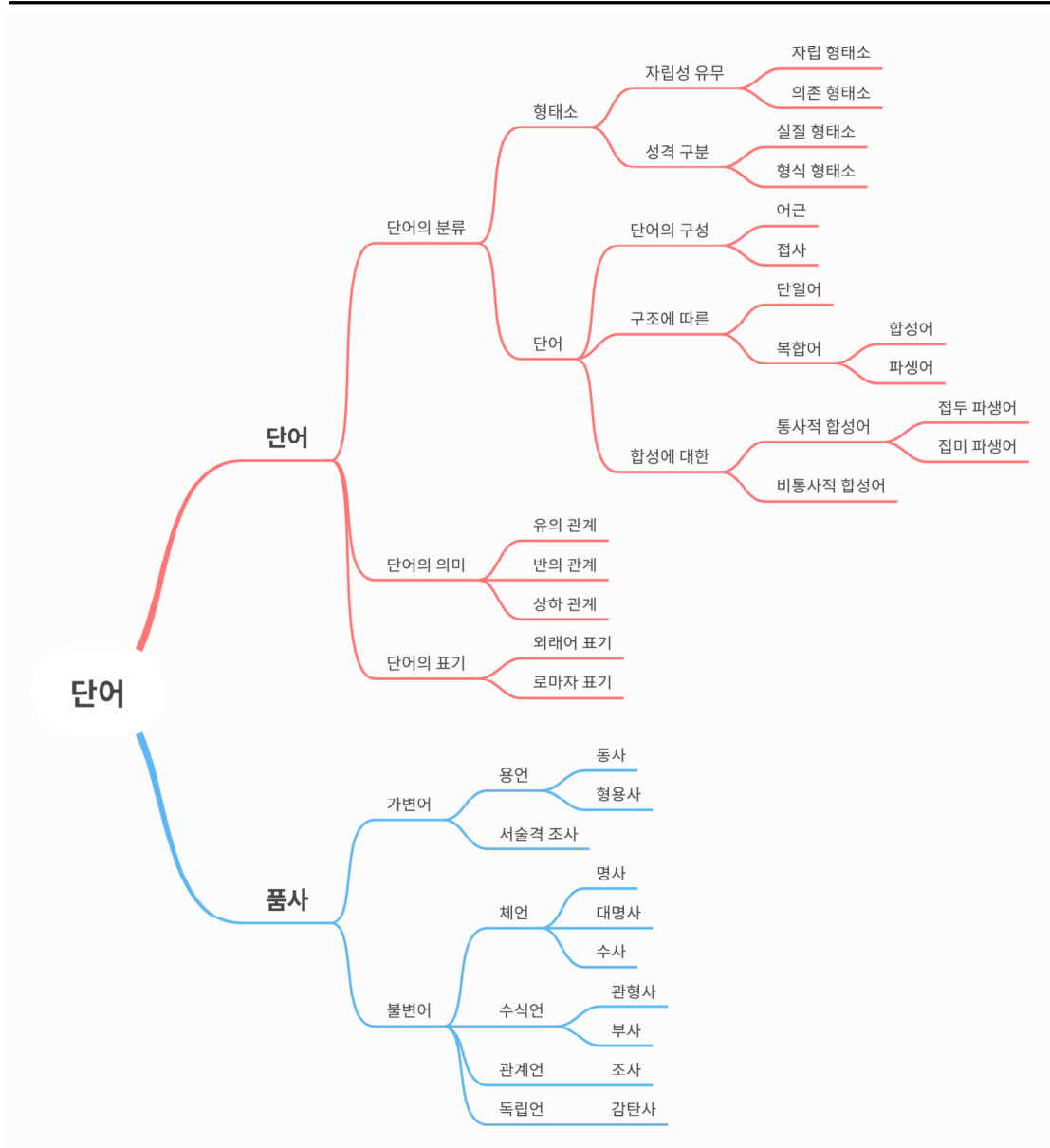
관형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와 결합되는 형태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형격 조사의 구성과 사용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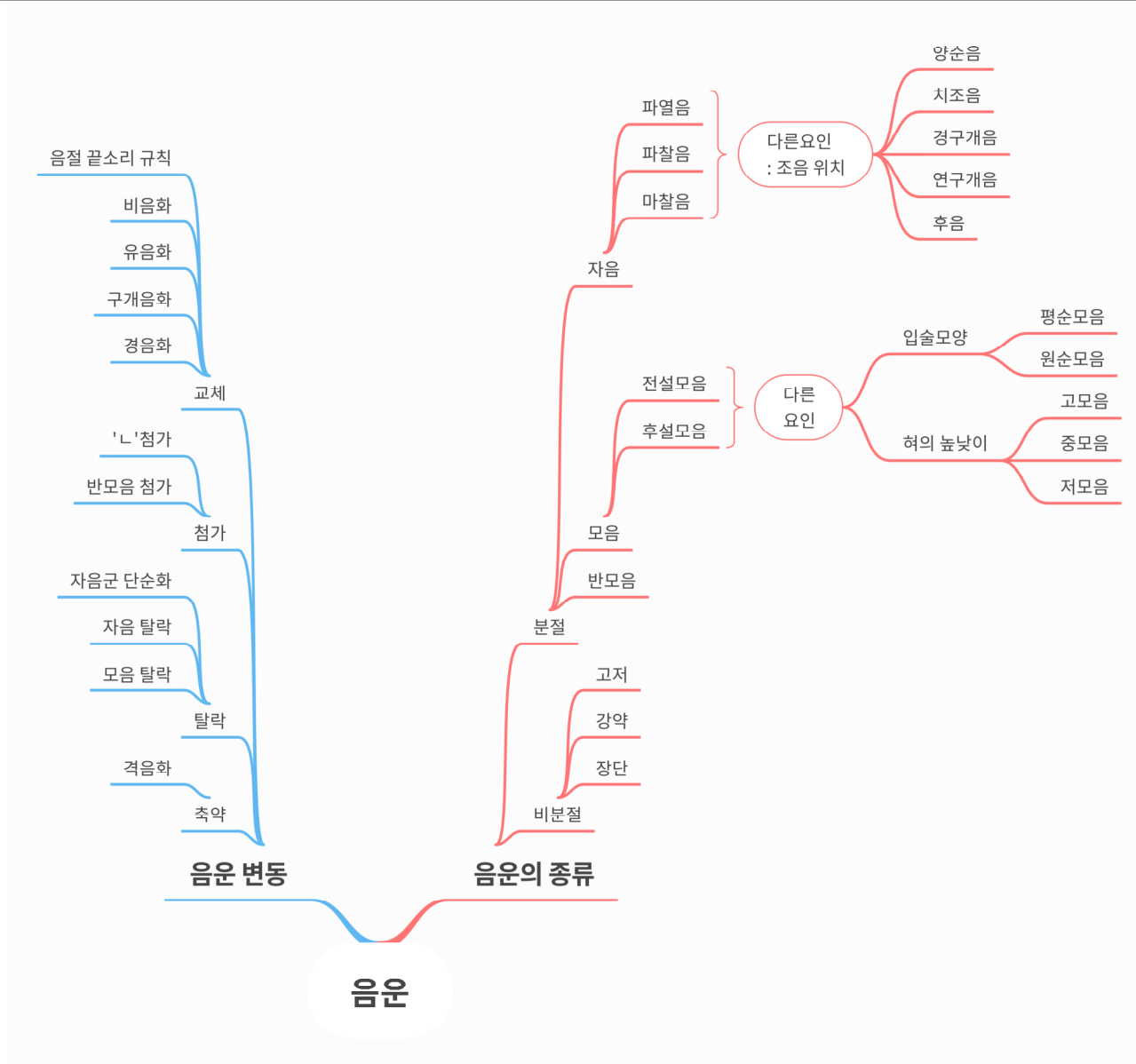
관형격 조사와 결합되는 명사: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결합되는 명사의 종류와 사용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대 국어와의 대응: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현대 국어의 어떤 표현과 대응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02. 문법사항 확인







(3) 문법

1) 조사

- ①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0(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0'로 나타남.
 - 예 말쌈미(말쌈+이), 네(너+ㅣ), 불휘(불휘+0)
- ② 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 르'로 실현됨.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을', 모음으로 끝날 때는 '를/를'로 나타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를/를' 대신 '르'이 사용되기도 함.
 - 예 바쁠(밥+을), 나를(나+를), 뜰(뜰+을), 너를(너+를), 머릴(머리+르)
- ③ 관형격 조사는 '의/의' 계열과 'ㅅ' 계열이 존재함.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의/의'로 나타남. 높임의 유정 체언, 또는 무정 체언에는 'ㅅ'이 나타남.
 - 예 사스미(사슴+의), 거부비(거북+의), 부텃(부터+ㅅ), 나뭇(나무+ㅅ)
- ④ 호격 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음.
 - 예 님금하 아릅쇼셔(임금이시여, 아소서.)

2) 의문문

- 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됨.
 - 예 므슴 마를 니르뇨(무슨 말을 이르느냐?)
이 엇던 사름고(이 어떤 사람인가?)
- ②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너', '-려'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됨.
 - 예 저므며 늘구미 잇느냐(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 썩리 너희 쯡가(이 딸이 너희들의 쯡이냐?)

3) 객체 높임 표현

-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됨. 또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습-, -줍-, -습-'은 각각 '-습-, -줍-, -습-'으로 실현됨.
 - 예 如來ㅅ 우희 듭습고(부처님 위에 뒀고)
父母의 安否 묻줍고(부모께 안부를 여쭙고)
스승니믈 보습고져(스승님을 뵈고자)

4 근대 국어

(1) 표기

1) 종성 표기: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ㅅ’이 ‘ㅈ’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ㅈ’ 대신 ‘ㅅ’을 사용함.

예) 밋어(믿어), 듯보다(듣보다)

2) 거듭 적기: 이어 적기 방식이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예) 먹글(먹을), 깊피(깊이)

(2) 음운

1) 자음

① ‘ㄷ’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예) 스디> 스이> 사이, 어버디> 어버이

② ‘ㄴ’계, ‘ㄹ’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

예) 뽏> 싯(뜻), 뽏> 싯(때)

③ 일부 단어들에서 격음화(거센소리되기)나 경음화(된소리되기)가 나타남.

예) 고키리> 코키리(코끼리), 꽃> 싯(꽃)

④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예) 티다> 치다, 율기디> 율기지

2) 모음

① ‘ㆍ’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화함.

예) 마르치다> 마르치다> 가르치다

②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ㅐ, ㅑ’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가 됨. 19세기에는 ‘ㅓ, ㅕ’의 단모음화가 일어남.

③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함.

예) 물> 물, 불> 불, 불다> 불다

(3) 문법

1)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함.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어 현대 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됨.

예) 비가 올 거시니(배가 올 것이니), 우리가 모로논가(우리가 모르는가?)

2) 불규칙 활용: ‘ㄷ’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셔> 지어, 이셔> 이어

3)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확립됨.

예) 머거 마초앗느니(먹어 갖추었느니), 어미 병들엇거늘(어미 병들었거늘)